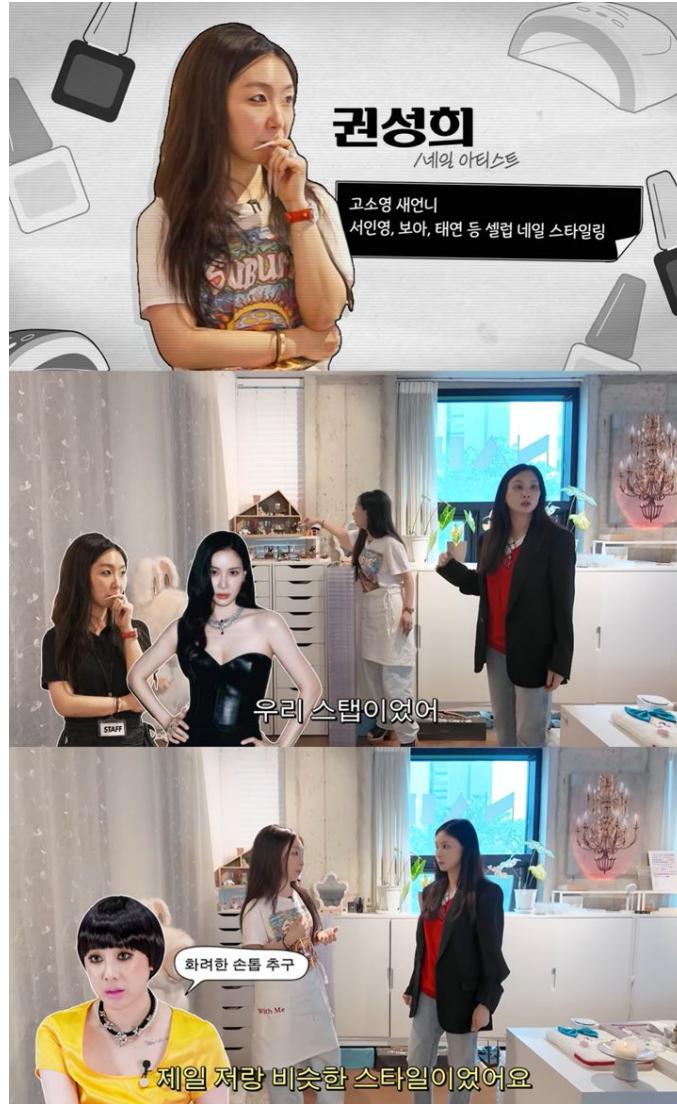


고소영, 올케 공개…서인영·송혜교·아이유와 남다른 인연

등록 2026.06.04 20:57:00



[서울=뉴시스]고소영(사진=유튜브 캡처) 2026.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고소영이 네일아티스트인 올케를 소개했다.

4일 고소영의 유튜브 채널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즐긴다는 고소영 친오빠 와이프 최초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고소영은 올케 권성희를 찾았다.

그는 "우리 스태프였다. 우리 크루였다. 우리 오빠랑 상관 없이 (먼저 알았다)"고 했다.

이에 권성희는 "아니다. 오빠가 먼저다. 제가 19살 때 (남편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고소영은 "어느 날 오빠 사진을 보는데 여자 손톱이 이렇게 (길더라.) 엄청 노는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또 "오빠가 '너도 아는 애다'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권성희?'라고 해서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영이 손톱이 엄청 유명하지 않나. 여기서 탄생한 것"이라고 했다.

권성희는 "원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일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었다. 지금은 인영씨가 (손톱이) 더 길다"고 했다.

또 "태연씨는 뮤직비디오 찍을 때 출장으로 (왔고) 한효주씨, 송혜교씨, 박민영씨, 아이유 거쳐간 사람이 많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